

## 오피니언

## 테마칼럼

## 건강과 생활

## 교육을 생각한다

## 문화와 창조

## 도시와 삶



김석주

“

탐욕은 인생을 갉아먹는 암세포보다 무섭고 잔인하며 악마처럼 겁고 지독같이 뜨겁기도 하지만 때로는 천사같이 순수하고 사랑보다 더 달콤한 눈길을의 달인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버리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이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더구나 탐욕에는 눈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을 장님으로 만드는 재주가 있다.

”

원망스런 분노와 좌절을 참고 이겨내야만 했던 한 해가 저물어 간다. 잔인하고 흑혹한 삶의 시련들은 우리를 보다 더 아름답고 바쁜 내 일의 일상이 되도록 안내하려는 계시라 생각하며 희망을 잊지 말고 웃으면서 새해를 맞이하자.

추위는 날씨보다도 훨씬 냉혹하고 비인간적이며 이기적이고 불인정한 인간들을 원망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겪고 있는 설움만 모질고 사나운 것은 아닌 것이다. 이우성까지도 참아야 하는 이웃들의 고통은 얼마나 참담했을까를 생각하며 잊지 말자는 것이다.

지금은 인간의 오�한 정이 넘쳐나는 삶의 이야기가 그리운 시대의 터널을 지나 모든 것이 칩(chip)에 끌려다니는 무인정, 무감정의 컴퓨터 조정시대이다. 때문에 눈물의 정겨움 따위는 전국인 것 같아도 천지사방에서 이 고통과 솔책을 염선하여 해결하려는 모럴과 법이 활동하고 신의 두 눈도 잠자지 않고 전후좌우를 살피면서 ‘내 것이 아니면 넘보지 말라’고 용서 없는 양관음을 준엄하게 경고하고 있다.

고독에 약하고 점에 굶주린 우리에게는 눈물 어린 자연 섭리의 삶이 필요하기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한 번 강조하니 제발 버릴 것은 버리고 지킬 것은 지키면서 건강을 관리하도록 하자.

탐욕은 인생을 갉아먹는 암세포보다 무섭고 잔인하며 악마처럼 겁고 지독같이 뜨겁기도 하지만 때로는 천사같이 순수하고 사랑보다 더 달콤한 눈길을의 달인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버리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이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더구나 탐욕에는 눈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을 장님으로 만드는 재주가 있다.

”

하게 버리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이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더구나 탐욕에는 눈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을 장님으로 만드는 재주가 있다.

그래서 입은 하나님과 두 혀비단을 갖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 육십쟁이 또는 재주꾼이라 부르고 있는 것이다. 지구상의 모든 동물을 생명을 유지할 정도로만 섭생을 하는데, 오직 인간만이 과식을 즐기고 있으니 이것도 버리지 못한 탐욕의 아쉬운 미련이 자기의 무덤을 파고 있는 꼴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정직한 사람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야 그 사람의 진가를 알게 되지만, 나쁜 인간은 하루를 끌어봐도 알 수 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고 숨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들킬때는 전국인 것 같아도 천지사방에서 이 고통과 솔책을 염선하여 해결하려는 모럴과 법이 활동하고 신의 두 눈도 잠자지 않고 전후좌우를 살피면서 ‘내 것이 아니면 넘보지 말라’고 용서 없는 양관음을 준엄하게 경고하고 있다.

유혹이 애교를 부리며 손짓을 해도 정직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는 것이 양심의 의무를 다하는 일이다. 거룩한 양심의 그 자리를 아비한 사람들에게 텁을 내고 있으니 사회가 혼란하고 사람들은 괴로울 수밖에 없다.

정직한 양심이 굳건하게 자리를 잡아야만 모든 인간의 몸에서 자라고 있는 질투와 분노, 그리고 의심의 잡초가 제거되어 우리에게 평

화와 풍요가 찾아올 것이다. 우리는 희망이 야심으로 변하는 일이 없도록 생활 속에서 즐거운 미소를 잊지 않도록 노력하며 즐겁게 살면 된다. 마틴 루터는 ‘돈은 강하지만, 월은 더 강하고, 여자는 조금 더 강하다고 하나 이보다 더 강한 것은 진리다.’라고 했으니 두고두고 곱씹어보자.

건강을 지키는데 특별한 비법이나 지름길은 없다. 모든 것이 마음먹기 나름인 만큼 자기 스스로의 윤리를 원칙을 세워서 피나는 노력으로 꾸준히 실천하는 삶의 길 밖에는 도리가 없다.

지금 세계 도처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모든 식품은 잘 먹으면 약이 되고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하며, 소식(小食)이 건강에 좋고 장수의 비결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먹을 것과 먹을 일이 많은 현실에서 환자도 아닌 건강인이 내일을 위해 절식하기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도 생활습관과 식생활을 개선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을 만성질환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탐욕을 버린 양심을 가지고 새해를 향한 힘찬 발걸음에 건강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한 해를 겸허하게 갈무리해보자.

〈한국전통문화교육원 향원당·향원당생태병원 이사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종교칼럼



송정용

성경에는 무지개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지개는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사상이 아니라 우주의 모든 사상 중에 최고가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인류가 땅에서 변성하면서 동시에 죄악도 함께 변성하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눈 뜨고 볼 수 있는 혼편이었습니다. 인내심 많으신 하나님께서도 차마 볼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심하시다가 생각해 낸 것이 흥수로 저들을 깨끗이 물 먹여 버리는 것이라

병이었습니다. 죄 없는 인간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단언합니다. 그것을 고쳐 갈 길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때리고 또 때리고 죽도록 때려도 고칠 수 없는 것이 인간성에 내재된 죄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때리고 자신이 죽기로 작정했습니다.

돌이키지 않는 자식들 앞에서 자신의 종아리를 때리는 부모도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극적으로 표현하여 무지개 사상이며, 적극적으로 표현된 것이십니다. 그런데 사회를 감축할 경우 아직 학교 만기가 되지 않은 교사가 다른 학

## 무지개 사상

는 결론이었습니다.

당대에도 죄에 물들지 않고 깨끗이 살아 보겠다고 힘쓰던 노아의 가족만 살려 두고 모두 물속에 잠기게 한 것입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계문하셨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흥수로 지상에 인류와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은 이후로 없어야겠다고 생각하시고 무지개를 두면서 사람들에게도 안심시켰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 죄인들을 다 없이하고 새 사람들을 세상을 채워 보았지만 역시 그들도 죄를 짓기는 마찬가였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버리고 흘로 수도하여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 더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죄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인간을 이 땅위에 내신 하나님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또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무지개 사상이요 십자가 사상인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큰 소리를 쳐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다 떠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임사호전(臨死呼天)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인류의 죄 문제는 흥수로도 못 잡는

왜 성탄절이 인류의 가장 기쁜 날입니까? 그것은 인류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을 선언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뜻 높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죄의 문제를 의식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써 왔습니다.

일부 동양인들은 가정을 포기하면서 흘로 수신(修身)의 길을 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연 그들은 죄의 문제를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기독교적 견해입니다.

인간의 죄 문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버리고 흘로 수도하여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 더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죄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인간을 이 땅위에 내신 하나님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또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무지개 사상이요 십자가 사상인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큰 소리를 쳐도 하나님에 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영어의 예를 들어

## 기고

## 김윤선



지난 9일 긴급 교직원 회의를 개최했다. 진로교사를 배치하기 위해서 교사 정원 1명을 감축하고 대신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안건에 대해 ‘담양고등학교 교인사자문위원회’에서는 결론이 나지 않아 전체 교직원 회의에 회부한 것이다. 인사자문위원회 규정 제22조와 제23조에 의하면 1교과 1교사 이상 확보를 원칙으로 복수교과가 있는 교과목 중 평균 시수가 가장 적은 교과부터 감축한다고 되어 있다. 이 원칙을 지키면서 사회, 영어, 과학 순으로 표현하여 무지개 사상이며, 적극적으로 표현된 것이십니다. 그런데 사회를 감축할 경우 아직 학교 만기가 되지 않은 교사가 다른 학

보자.

대학 입시를 앞두고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영어교사를 기간제 교사로 대체한다면, 학생들의 영어수업을 담보할 수 있는가? 담양군의 경우 광주에서 가깝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가 많이 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교사 임용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서울로 올라가서 학원에 다니고, 임용고시를 포기하거나 혼란에 어려운 사람들이 기간제 교사 신청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국어, 수학, 영어 교육을 맡겼을 경우, 학생들의 학력이 정규교사가 가르치는 정도의 교육목표에 도달할

## 진로교사 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

교로 밀려나야 한다. 영어를 감축하자니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원성이 불을 보듯 뿐하다. 과학을 감축하자니 생물 교사를 감해야 하는데 교육과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 이 편성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할 것인가?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부터 중등 학교에서의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진로 교육 활성화와 입학사정관제 등 다양하게 변화하는 입학제도에 대한 체계적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 고등학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기존의 담임 중심의 진로 진학지도와는 달리 이번에 배치하는 진로진학상담교사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본격적인 적용이 시작되는 2011년부터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학생의 희망과 미래직업전망 등을 바탕으로 한 진로교육 활성화에 핵심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새로운 역할로 제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교사 한 명을 기간제 교사로 대체하고 진로교사를 학교에 투입하는 것이 과연 현실에 맞는 방법인가 생각해 봐야 한다. 영어의 예를 들어

수 있을 것인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사 정원을 배정한 관계로, 지난 2009년 한 학년의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씩 5학급(140명)이던 것이, 올해는 학급당 학생 수 35명씩 4학급(140명)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어 교사 정원이 2명 줄었고 교실은 종나물교실이 되었다. 2011년도 신입생도 마찬가지로 학급당 학생 수 34명씩 4학급(138명)을 운영하게 되어 교사 2명이 또 감축된다. 여기에다 진로교사 정원이 늘어난 관계로 교사 한 명을 다시 감축하고 기간제 교사를 임용함으로써 쓰 은 손실은 고스란히 학생들 뒤에 될 것이 뻔하다. 전체 학생 수는 같은데 2년 사이 무려 5명의 정규교사를 감축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으면서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급 수 기준으로 교사 정원을 배치하거나, 교사정원은 그대로 두고 진로교사를 정원 외로 배치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담양고등학교 교장〉

## 타이어 제조일자 확인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최근 자동차 타이어를 교환하면서 지난해 새 타이어가 고속도로 주행중 평크나 차량이 크게 파손됐다는 보도가 생겼습니다.

자동차 타이어는 생산 후 보관기간이 길어지면 파손 위험이 커 안전사고로 직결되며 생산일자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운전자들이 타이어 생산일자를 확인하

기란 쉽지 않다. 타이어 옆면에 제조일자가 암호와 같은 작은 기호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운전자들은 운행 전 타이어의 마모상태와 공기압 등을 철저히 점검하는 습관으로 타이어 평크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이준호·광주 북구 운정동

## 시설

## 개선은 커녕 갈수록 노골화되는 지역편중

이명박 정부의 지역편중 정책이 갈수록 노골화·심화되고 있다. 3년 연속 여당 단독 처리라는 불명예를 남긴 새해 예산안이 형님·실세 행기기 논란을 일으킨 데 이어 최근 단행된 군(軍) 인사도 유례가 드문 지역편중 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한 새해 예산안 가운데 도로 예산을 보면 이번 예산안이 얼마나 특별지역에 편중돼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도로 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3553억 원이 증액됐다고 한다. 하지만 증액 예산의 절반인 1927억 원이 영남지역에 배정됐다. 이는 호남의 617억 원보다 무려 3배 이상 많은 액수다.

뿐만 아니라 정부 예산안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국회 처리과정에서 추가된 도로 예산 716억 원 중 영남지역에는 509억 원이 배정됐다. 반면 호남은 80억 원에 불과했다. 이 정부와 여당이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역편중 정책이 작금의 국가 안보 위기 상황에서 가장 절실했던 국민 통합을 해치는 것은 아닌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역사와 민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

문제는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광주·전남지역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이다. 1월 경기도 포천과 4월 인천 강화에서 잇따라 발생한 구제역에서 비켜갔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김연숙 도로를 통해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정부가 구제역의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옮긴 것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서다.

이번에도 당국의 초기 대응 미숙과 허술한 방역체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안동을 다녀온 수의사가 신발을 갈아신지 않은 사실이 나중에 확인돼 충남 보령에서 수만마리의 돼지를 살처분을 하게 되었다. 수의사가 정도면 다른 관리는 얼마나 허술하겠는가. 게다가 아직까지 전염 경로나

## 無等鼓

그리스 아테네에 마카스라는 뛰어난 조선 기술자가 있었는데 배를 만들 사람을 구하지 못하던 차에 바나바스라는 스승으로부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사람 일화를 듣고 사람을 얻는 지혜를 깨우친다는 내용이다.

겨울 블판에 똑같이 생긴 두 명의 눈사람이 있다. 행복한 눈사람 주위에는 늘 사람들이 모여든 반면 외로운 눈사

람은 그냥 지나칠 뿐이다. 결국 겨울이 가면 눈사람은 모두 녹아 없어지지만 행복한 눈사람은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 다음 겨울에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도 도로에 있던 눈사람을 치어 숨지게 (?) 하고

달아난 버스기사가 회사족이 해고한 것을 두고 친반논란이 일고 있다. 눈사람도 사람인데 어떻게 무참히 치고 달아나느냐는 비난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장애물을 제거한 것이라는 지지가 맞서고 있다. 찬반을 떠나 눈사람은 동양이나 서양에서나 인간 이상의 존재인 것 같다.

/정필수 사회부 차장 bungy@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			